

KTV

2014년 3월 10일

#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3. 4. 17:00	시청률	0.027

### 【총 평】

올해 신설된 <정책점검, 정책제안>은 KTV의 정체성과 잘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코너라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기획이라고 생각됨. 특히, 이번회의 경우 김을동의원의 ['일제침략만행' 세계기록유산 등재제안]을 다룸으로써, 3·1절 및 일본의 가미가제대원 유서 등재신청 등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돋보였음.

### 【구성 및 내용】

박 대통령 "이산상봉 정례화 북한과 협의", 이산상봉 정례화...통일준비 초석 등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과 연관된 후속뉴스를 적극적으로 다룬 점이 눈에 띄었음.

<창의교육, 대학의 길>의 경우 창의교육에 앞장서는 전향적인 대학의 모습 보다는 특정대학의 취업성과 등 홍보와 자화자찬에 머물고 있는 느낌임. 특정 대학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특정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좋을 것임.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3. 4. 18:15	시청률	0.002

### 【총 평】

'치매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다양한 코너들이 전개되었는데, 회를 거듭하면서 전체적인 구성인 구성 틀이 안정감 있게 진행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감각있는 연출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임.

### 【구성 및 내용】

이번주는 치매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음. 백세시대 '치매'에 대한 설명과 정책들이 집중력 있는 아이템이었고, 평소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국민들에게 무척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 정책 설명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자막 설명이 많은 편임. 읽을거리가 많다는 것이 다소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설명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좋을 듯함.

<정책은 노래를 타고>의 경우 자료화면의 컷 전환이 노래 리듬과 잘 맞아서 흥미로웠고 자료화면과 가수들의 모습이 적절히 배합되었음.

프로그램		희망로드 세계로	
방송일자	2014. 3. 4. 20:00	시청률	0.022

### 【총 평】

한국국제협력단의 김혜영씨가 네팔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 국위 선양의 감동적인 모습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음. 네팔의 시펄 보육원은 부모가 범죄로 수감되어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보육을 맡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짜임새 없는 나열식 구성으로 시청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음.

### 【구성 및 내용】

한국국제협력단의 일원으로서 네팔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김혜영씨의 이야기를 휴먼다큐 형식으로 풀어나갔는데, 소재가 특별해서 궁금증을 자아냈음.

한국정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팔 시펄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풀어나갔음. 몇 년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씩씩하고 밝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 김혜영씨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듯 했음.

특히, 아이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의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안타까움과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었음. 이야기 구성의 중심을 김혜영씨에게 맞추기 보다는 천진난만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춰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구성이 돋보였음.

또한, 너비나와 리싼 남매가 교도소에 수감중인 엄마를 만나 좋아하는 모습과 다른 교도소로 이감돼 엄마를 못만나 속상해 하는 써빈의 모습을 잘 표현했음. 몽당연필을 비롯해 헌 학용품을 사용하고 하루 2끼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모습을 짚어주어서 한국의 환경을 되돌아보고, 봉사, 절약의 정신을 자극하는 기폭제도 되었음.

전반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부모와 떨어져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네팔 어린이들의 천진만한 모습을 진솔하게 잘 담아냈지만, 한국말을 못알아 듣는다고 해도 아이들 옆에서 부모가 지은 죄를 인터뷰하는 장면은 보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음.

프로그램 구성에서 있어서 시청자에게 중점을 두어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을 강조하지 못한 밋밋한 구성으로 보육교사 출신의 김혜영씨가 주로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도 다소 부족했음.

프로그램	신문화별곡, 어울림		
방송일자	2014. 3. 5. 20:00	시청률	0.019

### 【총 평】

[정책중심의 방송]에 다양한 [문화 스펙트럼]을 더한다는 KTV의 새봄맞이 기획에 어울리는, "젊고 발랄한 가운데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소개한다"는 기획의 참신함이 눈에 띄었음. 그러나 <따따라 댄스홀>이라는 아이템이 20~30대 젊은 층 외 KTV의 주요시청층인 40~5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도 공감을 줄 수 있었는지는 다소 의문스러움.

### 【구성 및 내용】

도입부의 거리공연의 새로운 트렌드 따따라 댄스홀과 중후반부의 커뮤니티 소속 회원들의 사연간의 연계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자칫 단절감을 줄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음. 또한, 중년회원들의 인터뷰나 참여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20~30대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포커싱함으로써 다른 세대나 연령층들의 공감이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 화려한 영상과 신나는 음악이 흥겨움과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으나, <따따라 댄스홀>이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에 대한 자연스러운 집중이나 동화를 유도해 내지 못한 느낌임.

### 【자막 개선점】

자막사용에 있어서 통일성이 다소 부족해 보였음.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의 '네임슈퍼'는 [이름/직책이나 직업] 등이 사용되었으나, 김상곤씨(53)의 경우는 [이름/나이]가 삽입되었음. 김상곤씨의 경우, 앞에 나온 홍승숙씨(어머니)나 원이슬씨(딸)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된다면지 또는 원이슬(딸)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므로써 자칫 '아버지'로 오인될 소지도 있었던 것 같음. '김상곤/000의 아버지'라는 네임슈퍼를 삽입해 주었다더라면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임.





## 【참고사항】

<따따라 댄스홀>이라는 문화 커뮤니티가 일반적인 시청자들에게는 전혀 낯선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춤단체의 거리공연이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전제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도입부에서 아이템이나 주제에 공감가는 충분한 정보제공을 해주어야 함.

또한, **[두드림], [이끌림] 등 타이틀인 新문화별곡 어울림의 [어울림]과 비슷한 느낌의 주제어로 인해 이 단어들이 <코너제목>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용어 사용>인지 다소 혼동을 줄 소지가 있었음.** 도입부에서 보여진 [새소식 文化] 역시, 코너제목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화면구성이었음.

프로그램		한류! 세상과 통하다	
방송일자	2014. 3. 6. 15:00	시청률	0.018

## 【총 평】

피상적으로 한국의 전통이나 아름다움을 나열하는 도식적인 프로그램을 탈피, 외국인들이 직접 한류의 비밀을 찾아본다는 발상 및 접근방식이 부에 와닿는 느낌을 주었음. 특히, 한국어에 능통한 훈남훈녀 외국 젊은이들이 참여해,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모자람이 없었음.

**한류란 우리의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탄 것임. 따라서, 보편적으로 세계 유행이 된 한식을 알아보고 외국인들이 그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프로그램의 제목과 맞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제목에서 느껴진 것과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하게 느껴졌음.**

## 【구성 및 내용】

[세 젊은이들이 전통한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 ['김현숙 한식전문가'를 만나서 한식에 대한 설명청취 및 한옥탐방], ['말린 도토리묵 잡채' 등 세가지 한식 맛봄] ~ [한식만들기(김치) 도전!], [각자의 미션에 따른 음식만들기 도전!] 등, 일련의 구성이 매우 흥미진진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쳤음. 특히, '한식'이라는 콘셉트에 어울리는 다양한 국악 BGM 및 '대장금 OST' 활용이 돋보였음.

세 외국 젊은이들의 눈높이에서 한식을 바라본 영상구성의 세심함이 돋보였고, 과도하지 않은 간결하면서도 가시성 높은 해설 및 상황자막이 시청을 한결 편하게끔 해주었음.

이번 1회가 끝이 아니고 미션수행이라는 다음 회가 이어지므로, <제2부>가 이어진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임.

### 【참고사항】

세 젊은 외국인들이 찾아간 '한식 식당'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경기도 00시' 등으로 자막을 처리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 또한, 찾아간 식당 이름(한자로 古家)의 노출이 다소 잦은 편이었음.



프로그램		인문학 열전	
방송일자	2014. 3. 6. 16:05	시청률	0.060

### 【총 평】

<우리시대의 인문학 - 격변의 시대 갑오개혁을 돌아보다>, <길 위의 인문학 - 갑오개혁과 근대문학>, <명사의 인문학 서재 - 임용한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소장> 등으로 구성됐음.

역사학자이며 작가인 한명기 교수와 함께 갑오개혁과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전략을 모색한다'라는 설명처럼 과거 이야기가 현재의 거울이 돼 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프로그램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4. 3. 6. 20:00	시청률	0.051

### 【총 평】

충북 제천에서 양조업을 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단양에서 대강 막걸리를 운영하는 조재구씨를 소개했는데 전통 막걸리 제조라는 소재의 희소성 등이 흥미롭게 다가왔음.

### 【구성 및 내용】

1918년 창업한 '대강 양조장'은 조재구씨의 귀농으로 4대째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더 좋은 막걸리를 만들려는 모습을 잘 그려냈음. 막걸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화에 노력하고 막걸리를 세계적인 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농인 조재구씨의 모습을 잘 표현했음.

프로그램	이상벽의 TV 시간여행		
방송일자	2014. 3. 7. 14:05	시청률	0.067

### 【총 평】

<통곡의 재회, 이산상봉 그 후 30년>을 주제로 1983년 KBS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자료화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산가족들의 생활상 등이 적절히 어우러져 이산가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비극이 잘 그려졌음.

### 【구성 및 내용】

임현식의 <영상기록 시간 속으로>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청자에게는 그 구수했던 재미와 대비되는 밋밋하고 건조한 흐름이 뭔가 미흡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됨.

지난 2월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한 강능환 할아버지를 상봉전에 만나 이야기들은 만큼 상봉 후 다시 만나 소감을 들어봤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 특히, **이산가족 할머니를 만난 진행자가 “오빠 셋”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남독녀인데!”라고 반응한 것은 오류인 만큼 현장에서 제작진이 걸러내야 했음.** 또 할머니가 남편과 월남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모님도 만나야 하고 주인양반도 만나야 하고”라고 언급한 것은 인터뷰에 무성의한 진행자의 모습이었음.



프로그램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		
방송일자	2014. 3. 7. 16:05	시청률	0.022

### 【총 평】

최근 들어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새마을노래]를 다룬 주제선정의 신선함이 돋보였음.

특히, 일반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박정희정책대학원'의 방송위원장이 출연,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운동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운동]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부각시켜준 점이 매우 좋았다고 봄.

#### 【구성 및 내용】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저개발국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신운동'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기획의 전향적 마인드가 돋보였음.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해서 적시해줌으로써, [새마을운동]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진가를 되새겨 보게 한 점이 눈에 띄었음. 특히,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잘 살아보세"라는 농촌운동의 단계를 넘어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회혁명적 운동"이라는 점 등에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

프로그램	문화유랑 2,014km		
방송일자	2014. 3. 8. 21:00	시청률	0.067

#### 【총 평】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구레편 방송은 다소 실망스러운 흐름이었음. 지리산 등반과 산수유마을 기행 등은 지역을 소개하는 여행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었고 문화유랑단은 리포터의 역할에 충실한 듯한 모습이었음.

#### 【구성 및 내용】

순천 여행 두 번째 이야기와 네 번째 여행지인 구레 여행 첫 번째 시간이 소개되었음. 두 여행지가 의미 있게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어서 오히려 맥이 끊기는 느낌이었음. 겨울이라는 계절의 영향으로 관광지의 많은 부분이 자료사진으로 대체되고 있어 아쉬웠음.